주목받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목재 활용 다양한 제품 전시·홍보하는 최초 목재산업 전문기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서 목재텀블러·상패 등 관람객 인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목재용품을 감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가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목재산업 전문기관이다.

이번 산림문화박람회에서는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홍보하며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전시된 제품 중에서는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목재텀블러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목재를 활용한 신선한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 할 수 있어 관람객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목공예센터 공예공방에서는 생활목공 DIY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 및 방문 학생들에게 목재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감사패, 소반 등 다양한 목재제품의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통해 제품의 차별성 및 공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목재를 활용한 상패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인기를 끄는 목재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목재관련 창업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목재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목재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발표와 기술설명회도 열렸다.

(사)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회(11~12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15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분야 우수기술 설명회(16일), 산림경영정보학회 학술연구 발표회(17~18일), 사유림 발전연구회 학술발표회(18일)가 개최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들어섰다

기찬랜드 300석 규모 공연장…하춘화 전시관도

영암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사진〉가 들어섰다.

영암군 기찬랜드 내 연면적 2033㎡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가요센터는 트로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전통 가요 역사관(1층)과 하춘화 전시관(2층)으로 구성됐다.

이 센터는 7년 전 국민가수 하춘화의 아버지인 고(故) 하종오 선생이 60년 가까이 딸의 가수 활동을 통해 모은 한국 전통 가요 연구의 사료(史料)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영암군에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영암군은 앞으로 대극장 개관 등을 통해 전통 가요의 산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가요센터 개관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연다.

MC 이상벽의 사회로 진행될 개관식 공연에는 하춘화, 주현미, 송대관, 설운도, 현숙, 남일해, 박재란, 김혜연, 박상철, 최유나, 강진 등 최고의 출연진과 특별게스트로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가 출연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트로트 가요센터는 전통 가요를 꿈꾸는 후세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꿈의 장소로써 한국 전통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산으로 길이 길이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책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강진군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대여 서비스 시작

“책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강진군도서관 이동도서관이 새로운 버스로 운행을 시작했다. 〈사진〉

이동도서관은 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에게 찾아가 책을 쉽고 편리하게 빌려 읽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생활 도서서비스이다.

도서관은 지난 1994년부터 전체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노후 된 차량의 잦은 고장과 수리 등으로 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동도서관 새 차 구매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6월 35인승을 구매했다.

또 이동도서관 특수차량으로 개조해 10월 초 새로운 운행을 시작했다.

새 이동도서관 버스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책 버스’라는 명칭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외부와 내부에 부착하여 친근감을 더했다.

차량 내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높낮이 의자와 소파 등도 설치돼 안락함을 더했다.

도서 3만3000권을 보유한 이동도서관 버스는 2000여권의 신간 도서를 싣고 한 달에 두차례 196곳의 마을과 학교, 군부대, 의료원, 기관 등 강진 전역에 군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모두 1만1424권의 도서를 군민들에게 전달하여 독서 생활화에 앞장섰다.

이동도서관 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이다”며 “이번에 새로 구매한 강진 책 버스는 군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사업 전개

고객이 산 물품 버스 승강장·터미널 등 운반…편의 제공

영암군이 지역 전통시장(영암, 신북, 시종, 독천)에서 고객이 산 물품을 인근 버스 승강장이나 터미널, 주차장까지 배송해주는 ‘전통시장 나르미(美) 운영’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암·독천시장 4명, 신북·시종 시장 2명으로 구성돼 시장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내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장바구니가 무거울 경우 시장 내 설치된 호출벨을 누르면 시장 나르미가 고객에게 다가가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고령 및 중장년 고객들이고, 많은 양의 물품을 한 번에 배달해주는 방식이라 이용객에게 호응이 예상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202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연계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시장 나르미 인원을 시장별 8명, 총 3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강진군, ‘세계대학 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 창립총회

강진군은 지난 17일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영리 단체 등록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조직위원회는 대한역도연맹, 대학역도연맹, 전남도 역도연맹 임원과 강진군 기관단체장과 사회봉사단체장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위원 위촉과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선임, 2019 사업계획, 단체 사무소 설치 등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조직위원회는 강진군 최초로 추진되는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강진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임원은 조직위원장인 이승옥 강진군수와 차영수 대학역도연맹회장, 황호용 전남역도연맹회장이 선임됐다.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 설치하고 올해 연말까지 대회 포스터, 홈페이지, 메달 디자인 등을 제작할 예정으로 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12월 개소

장난감 500여종 보유…실내암벽타기 등 놀이공간도 갖춰

장흥군이 올해 12월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한다.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개소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장흥지역자활센터 2층을 친환경 자재로 새롭게 리모델링해 만든다.

장난감 500여종, 정글짐, 실내암벽타기 등 놀이공간과 수유시설, 휴게공간 등을 갖추기 위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연 1만원의 회비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영유아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